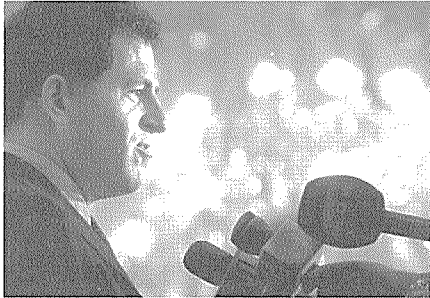


델컴퓨터, 3년 안에 인도의 직원수를 2만명으로 확대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은 3월 20일 인도의 기술 중심지 방갈로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3년 안에 인도의 직원수를 현재의 2배인 2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델은 현재 인도에 직원 약 1만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콜 센터와 여타 사업 지원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델은 예전에 직원수를 1만5,000명으로 늘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는 인도에는 재능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환상적인 기회가 있다며 엔지니어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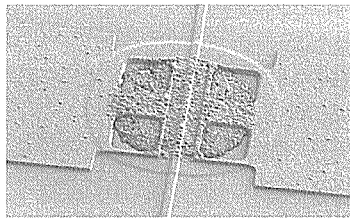
델은 인도 PC 시장에서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델은 인도에 공장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생산의 많은 부분을 해외로 돌려 온 다른 PC 제조업체들과 달리 델은 미국에서 제조 위상을 강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컴퓨터를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델의 사업 모델은 제조시설을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두도록 요구한다.

델은 앞서 인도에 새 컴퓨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풍부한

인도의 영어 구사자들을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콜 센터에 투자하고 있다. 델은 미국과 유럽에 공장이 있으며 중국에도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세이코엡슨·JSR, 프린터 기술 응용 LCD 제조법 개발



세이코엡슨과 재료업체인 JSR은 잉크젯 방식 프린터 기술을 응용해 액정(LCD) 디스플레이에 들어있는 필름 상태의 트랜지스터(TFT)를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LCD 디스플레이 화면에 사용되는 TFT 제조공정은 진공 중에 트랜지스터 기판에 실리콘 막을 만든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 등 공정이 복잡하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인쇄 대상에 잉크를 묻히는 프린터 기술을 응용해 액체 실리콘을 기판에 붙여 자유자재로 실리콘 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코 측은 “이 기술을 응용하면 공정이 간편하고 소재 낭비가 없다”며 “LCD 디스플레이 제조 원가를 10분의 1로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필립스전자, 소비자의 디자인이 반영된 전자제품 출시

필립스 전자가 이르면 올해 안에 소비자의

디자인이 반영된 전자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3월 29일 밝혔다.

PHILIPS 필립스는 이날 자사 디자인 연구소에서 더 친근하고 사용하기 쉬운 첨단 기술 제품을 찾는 고객들과 협력을 통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필립스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르면 올해 안에 제품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아이디어들은 디자인 연구 프로젝트인 ‘필립스 인투이티브 커넥티드 홈(Philips Intuitive Connected Home)’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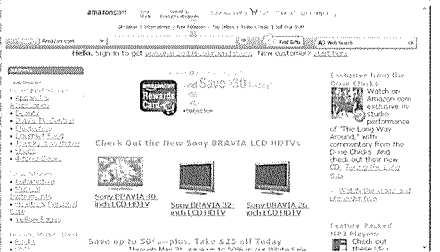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안톤 앤드류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사용자 경험이 우리의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이끄는 힘”이라고 말했다.

필립스는 이날 음악 재생 기기들이 표준 TV 리모콘으로 어떻게 음악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지 시연했다.

아마존 검색엔진, 구글에서 MS의 MSN로 바꿨다

아마존이 검색엔진 업체를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로 바꿨다.

로이터통신은 아마존의 검색엔진 교체로 MS가 구글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4월 1일 보도했다. 아마존의 MSN 선택으로 최근 시장점유율 하락세에 있는 MS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구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사 검색엔진 A9 등에 MS의 MSN을 사용키로 했다.

지난 4월 30일 아마존 사이트에서 구글의 검색엔진이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MS MSN 인터넷 부문 수석 제품 매니저인 저스틴 오스머는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윈도우 라이브 검색 브랜드를 알리는 것은 우리에게 또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도시바, 최근 HD DVD 탑재 노트북 출시



블루레이와 HD DVD 진영으로 나뉘어 무려 4년간 기술전쟁을 벌여 온 차세대 DVD플레이어가 이달말부터 미국시장에서 출시를 시작, 고객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

도시바가 이달말 첫번째 HD DVD 플레이어(HD-A1)를 499달러에 선보이는 데 이어 다음달 23일에는 삼성전자가 최초의 블루레이 DVD플레이어(BD-1000)를 999달러선에 내놓을 계획이다. 도시바는 최근 HD DVD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하는 등 기선 잡기에 나섰다.

최초로 블루레이 드라이브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던 플레이스테이션3(PS3) 출시도 연기될 전망이다. 하지만 올 여름께엔

블루레이 DVD플레이어와 이를 탑재한 바이오 노트북은 내놓을 예정이다.

이처럼 하드웨어 쪽에서는 본격 경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콘텐츠 부문의 본격 경쟁은 한달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대다수 영화사들의 콘텐츠 출시계획이 짧게는 한두 주일 늦어진 이달말에서 길게는 2달가량 늦어지고 있어 차세대 DVD 성능 심판도 6월이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니는 6월까지 ‘히치’ 등 16개 블루레이 타이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세기폭스, 라이온스 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워너브라더스, 패러마운트, 월트디즈니 등 다른 영화사들도 블루레이 타이틀을 준비중이다.

MS-퀄컴, '스마트폰 협력 계약' 체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퀄컴이 ‘스마트폰 협력 계약’을 체결, 합작회사를 설립해 하반기 중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놓는다.

MS는 지난주 윈도우 모바일 운영체제(OS)를 퀄컴의 차세대 휴대폰에서 가동되도록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퀄컴의 CDMA 칩으로는 이메일, 모바일 TV, 워드 프로세싱 같은 컴퓨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퀄컴의 CDMA 칩 및 W-CDMA 칩 관련 기술을 제공받고 있는 휴대폰업체들도 MS의 윈도우 모바일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새로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개발시간 단축 △다양한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가동 △MSO 피스모바일 가동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 모바일 등을 구동할 수 있게 된다.

퀄컴의 산제이 K 자 CDMA사업부 담당 사장은 “앞으로 윈도 모바일이 장착된 퀄컴의 MSM 칩셋이 보다 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혁신적이고 강한 차세대 스마트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회사간 제휴는 휴대폰용 OS인 ‘윈도 모바일’을 보다 많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보급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발표는 노키아와 ATI가 3차원(3D)게임, 모바일TV 및 고화질 비디오 등 개선된 멀티미디어콘텐츠 개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야후, DVR 기기 없이 TV방송 녹화 소프트웨어 공개

야후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별도의 영상저장장치(DVR) 기기 없이도 TV 방송을 녹화했다 다시 볼 수 있는 무료 SW를 공개했다.

C넷은 4월 26일 야후가 PC에 설치하면 그대로 기존의 DVR처럼 전환되는 무료 소프트웨어 ‘야후 고 포 TV(Yahoo Go for TV)’ 베타버전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컴퓨터와 TV의 AV 인풋 단자에 연결하면 컴퓨터는 DVR처럼 TV 방송을 녹화하고 재생해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DVD, 음악, 사진 또는 다른 다운로드가능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윈도상에서만 운용가능하며 20GB 디스크 공간과 512MB 램, 1GHz 프로세서를 필요로 한다.

또한 TV 수신을 위한 튜너 카드와 TV와의 접속을 위한 커넥터 케이블도 구비해야 한다.